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 배경, 강의 8, 목자의 왕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8번째 세션, 셰퍼드 킹입니다.

글쎄, 이 섹션에서 우리는 석방에 대한 생각과 석방을 제정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 즉 왕에 대한 도약판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될 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은유 중 하나, 즉 목자라는 용어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릴리스 개념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을 좀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은 그에 대한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위해 양심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양심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중재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모세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관해 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릴리스가 완료되지 않은 것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와 같은 중요한 선지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에서 몇 구절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가에 대한 정의.

물론 하인이 누구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종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단어입니다. 정의는 왕이 공급자이자 보호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이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사야 42장 6절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지키리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 그분은 나라들의 빛으로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분은 눈먼 눈을 뜨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지하 감옥에서 이끌어 내시며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가 할 일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종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61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종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61장에서 그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이사야가 한 것 같은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구절인데, 내 생각에 이사야가 한 것 같다는 것은 해방의 어휘를 활용하여 앞으로 올 종의 모습이 무엇을 할 것인지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그가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할 때 가장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경멸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해제 단어 중 하나입니다. 나는 그가 이것을 적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 7년마다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장차 올 종의 독특한 왕실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나는 그가 방출 언어를 개조하여 그것이 원래 있던 곳, 즉 왕실 인물인 하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하인과 같은 용어는 처음에는 부끄럽게도 하인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것이 개선적인 단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인은 실제로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노예가 왕실 용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 겠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이유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특정 신의 노예로 묘사했습니다.

사실, 왕이 신에게 바치는 신전을 짓거나 개조하도록 명령할 때, 왕은 흔히 자신을 노예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은 자신의 이미지를 그렸는데, 이는 그가 윗옷과 아랫옷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왕은 흙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신의 노예로서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신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있으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왕족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왕이 자신을 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직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사야가 말하는 종이 반왕국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전적으로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왕실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는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느니라. 나에게 기름부으셨다는 말은 영어 단어인 메시아(Messiah)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61장이 해방을 선포할 다가오는 왕의 인물을 묘사하는 구절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왕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를 묘사하기 위해 해방 개념을 적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공급자이자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사야 61장은 누가복음 4장에서 왕의 신분과 활동을 모두 밝히기 위해 분명히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잘 알려진 전략적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성경에 전파되며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의 인물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 이르사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건네주시더라 .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요? 그는 이사야서를 직접 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그것은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였는데, 이사야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록된 곳을 찾았음이니라. 그분께서는 해방을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페시스(구원과 해방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여호와(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사야 61장 2절 중간에 바로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사야서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시대의 자기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고 저것을 알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이사야가 적용한 레위기 25장의 석방 용어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개념의 병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여기에 오셔서 빛을 탕감해 주실 것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John Yoder는 이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다가오는 메시아 인물이 할 일은 소경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빛을 탕감하는 일로 예시되는 고대 이스라엘 왕의 왕실 사역과 메시아의 치유 사역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미국 청중과는 달리, 나사렛에서 예수를 청중은 그가 주장하는 바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오직 어떤 종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만 그 사건에서 실제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해방을 제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왕이신 고대 왕실 관행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대문자로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7년마다 해방을 발표하신 것이 아니라 해방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고 나 자신도 그 점을 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가복음 4장에서 그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석방을 선언할 때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것이지만, 나는 그것이 유명한 희년 개념이 있는 레위기 25장을 이사야 61장에 각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려고 하는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25장,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을 읽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해방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레위기 25장을 어떻게 사용했고,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는 매우 풍부한 성경 메시지를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를 염두에 두고 고대 릴리스로 돌아가서 목자에 대한 왕의 칭호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한 거의 모든 릴리스에서 왕이 자신을 목자라고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빗을 탕감해 줄 때마다 자신을 백성들에게 목자라고 소개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로 돌아가서 그 지점을 포착한 다음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세계의 왕권에 관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메시지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목자의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자(Shepherd)는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서 가장 흔한 왕족 칭호 또는 별칭 중 하나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목자로 언급한 왕들의 모든 예 또는 거의 모든 예를 인용한 문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하고 끈질긴 왕실의 프레젠테이션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항상 고대 근동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제목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목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쁜 용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용어입니다.

이는 왕권의 두 가지 큰 활동을 식별하기 위해 따로 떼어 놓은 용어입니다. 목자라는 제목에서 그는 공급자이자 보호자입니다. Tim Laniak 이라는 현대 작가가 쓴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나는 Tim이 [Gordon-Conwell, Charolette]를 가르치는 곳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미국 북동부에 있는 학교라고 믿습니다. 그는 출판사에서 책을 썼습니다. Ivy Press, InterVarsity 또는 Tyndale 중 어느 것이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책 제목은 '내 마음을 따르는 목자'였습니다.

책의 뒷부분에는 목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왕들의 왕족 칭호가 모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동 지역의 왕들에게 목자라는 칭호가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고대 세계에 살면서 통치했던 대다수의 왕 중에서 우리는 그들의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왕들 중에서 대다수의 왕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정의로운 목자, 의로운 목자, 겸손한 목자, 열정적인 목자 등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했으며, 모두 목자라는 명칭을 중심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므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석방될 때마다 왕이 목자로 불렸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자신을 목자로서 스스로 계시하신다는 사실 사이에는 기념비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성경의 일부 구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목자라는 칭호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적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왕으로는 수메르 왕, 아카드 왕, 바빌로니아 왕, 이집트 왕, 우리에게 문서를 남긴 고대 근동의 왕들은 모두 스스로를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항상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기념비적으로 중요한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의 구체적인 요점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자신의 백성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목자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항상 온화하고 호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에 대해 풍부한 의미를 갖는 강력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 노트에서 저는 우리를 구약의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나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묘사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땅과 영원한 물인 물을 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는 그것들을 정원에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산 밖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이 암시하는 바는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후대하신다는 고대 이미지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아껴두려는 또 다른 주제 영역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첫 번째 장소는 창세기 48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축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며 48장 15절에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를 속량하신 사자시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이 아이를 축복하여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중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들이 땅 한가운데서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목자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인 것은 확실히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숭배했던 신에 대한 고대 왕실의 모습을 이해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이 신은 공급자이자 보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곱의 평생 동안 목자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목자라는 칭호와 관련하여 우리가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사고 속에 자동적으로 목자 목자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수의 말에 따르면 온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아름다운 흰 양,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계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문자적인 양치기와 문자적인 양의 이미지를 통해 이것에 대해 거의 완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작하자면 고대 근동 지역의 거의 모든 중요한 왕들의 칭호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성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제목의 매트릭스가 더 이상 목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의 매트릭스는 더 이상 목가적이지 않고 왕실적이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시점에 목가적인 이미지는 왕들이 장려하고 싶었던 사상을 반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그것은 확실히 한 순간도 아니었고, 주로 목가적인 것을 멈추고 주로 왕족적인 것이 되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일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교회에 다닌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Pastor)는 목자를 뜻하는 라틴어이다.

우리는 제목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계공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 대리인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이다. 양과 목자라는 원래의 이미지를 대부분 잃어버렸고, 지금은 제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대에는 그 칭호가 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여호와께서 나의 평생 동안 나의 목자셨다고 말할 때, 그는 아마도 목회적인 의미의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공급자이자 보호자이셨다는 왕실의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창세기의 두 번째 구절은 완전한 축복에 관한 장인 창세기 49장이며, 우리는 요셉에 관해 이것을 읽습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활은 굳건히 자리잡고 있었고, 그의 팔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서 민첩했습니다. 거기로부터 목자, 이스라엘의 돌, 반석이 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창세기 49장 24절에서 그가 겉으로 보기에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용어인 목자와 반석을 병치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는 경우에만 연결이 끊어집니다. 왕실 용어로 읽으면 동시적입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목자이시며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은 반석이신 왕이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분은 바위가 힘과 안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공급자이자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이시며 목자의 이미지는 더 이상 동물계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왕이 공급자이자 보호자라는 두 가지 활동을 형상화하게 된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구약성서, 어쩌면 신약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목양의 구절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시편 23편이 대체로 오용되어 온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 제가 읽으려고 가져오고 싶은 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적으로 교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방. 그래서 저는 이 문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강의를 끝나고 오늘 저녁 집에 갈 때 그 책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모든 것을 말한 이유는 시편 23편이 얼핏 보면 양과

목자에 관한 시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시편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후반부에 이르면 그것은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며 그들의 언어로 여호와와 나의 왕이라는 뜻이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느니라. 그분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글썄, 여러분이 더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ukulti-Ninurta I이라는 아시리아 왕의 왕실 비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과 매우 놀랍도록 유사하여 제 학생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말 그대로 충격을 받습니다.

시편 23편은 실제로 양과 목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공급자이자 보호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정말 여호와가 나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알려주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푸른 초장을 주시고, 쉼 만한 물을 주시는 등의 일을 하십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은 왜 그가 후반부의 이미지에서 겉보기에 근본적으로 다른 이미지로 전환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지팡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왕의 지팡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며, 그것들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나를 위로한다. 당신은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잠깐, 그는 아름다운 목가적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며 귀엽고 하얗고 깨끗한 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미지에서 그는 적들 앞에서 안전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에게 얼마나 말해야 할지, 얼마나 말하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번 주 강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처음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는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여호수아의 그 구절에서 여호와 벻룩이 패배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면 사사입니까? 내 기억이 지금 나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호와 벻룩은 패배했고, 패배한 왕으로서 그는 여호수아의 식탁 아래 앉아서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복종을 보여줍니다.

글쎄, 이 모든 것은 왕이 전투에서 승리할 때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는 포로로 잡힌 왕을 데려가 왕의 복종과 승리의 표시로 그를 그의 식탁 아래에 세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치고 원수를 이스라엘 왕의 식탁 아래 두었는지를 지적하심으로써 시편을 통일시키고 계십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을 하나로 묶는 것은 시편의 모든 부분이 목자의 이미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모든 부분이 왕의 이미지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시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보호자이십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의 해방어에서 왕은 자신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왕이 공급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자, 이것은 본질적으로 성경 공부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멜라 밀른(Pamela Milne)이 쓴 놀라운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그녀는 시편 23편의 언어가 출애굽기의 방황에서 따온 것임을 주석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광야를 헤쳐나가는 이스라엘의 언어인 시편 23편의 어휘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는 일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왕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광야 방황 중에 계시지 않고, 이제는 왕정시대에 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목자라는 용어가 어떻게 왕실 용어이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 주목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에는 구약성서에서 미가라는 용어가 메시아 관련 구절에서 사용된 첫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와 함께 미가 5장으로 갔다면 미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군대를 소집하라, 군대의 딸들아, 그들이 막대기로 우리를 에워쌌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니라.

물론 재판관은 왕족의 용어이자 행정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분의 행하심은 아득히 먼 옛날, 영원의 날, 옛적부터니라. 그러므로 임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들을 붙여 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중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일어나서 그의 양떼를 치리라.

좋아요, 그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올 인물이 오실 것이며, 이 오시는 인물이 하실 일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양 떼를 치기 위해 여자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셨고, 그가 하시는 일은 신약성서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목자가 통치하고, 왕으로 행동한다는 뜻을 상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목자라는 용어를 명백히 메시아적으로 사용한 첫 번째 사건인 미가서 5장의 목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과 왕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아마도 구약성서에서 가장 극적인 구절은 그 이후에 나온 것일 것입니다.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에서 그는 그의 책의 거의 전체 장을 구약성서에서 우화적으로 전개된 목자 비유가 있는 유일한 사례에 할애했습니다.

즉, 전체 장은 독특한 것에 넘겨집니다. 그것은 항상 왕권에 관한 목자 은유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앞으로 올 인물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해 우화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그런 다음 그가 하는 일은 마지막에 22절에서 긴 은유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것을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22절의 우화적인 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건져내리니 그들이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양과 저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 다음에 아주 극적이고 중요한 구절을 주목하고 그 후에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우리니 내 종 다윗은 그들을 먹이리니 스스로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이것이 놀랍도록 메시아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또 다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했고, 이제 에스겔은 에스겔 시대에 다윗이 사라진 지 5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위에 세우리라. 신약성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매우 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실제로 매우 극적인 여러 가지가 바로 새 목자와 하나님 자신의 연합입니다. 다시 한 번 그 구절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위에 세우리니 24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가 한 일은 장차 오실 목자요 왕을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극적으로 읽은 예수님의 자기 표현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주석적으로 신약성서의 가장 위대한 목자 구절인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 중 한 사람은 에스겔 34장에서 가져온 요한복음 10장의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언어입니다.

이제 구약의 배경을 훨씬 넘어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도달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나를 막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그 내용을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마지막 목자의 중요한 구절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10장, 11장, 13장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이 구절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후반부에 개인적으로 스가랴서가 구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후반부에서 그는 장차 올 목자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스가랴서에서는 그를 매맞은 목자로 언급합니다. 그가 이 다가오는 목자에 대해 매혹된 개인으로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여러 장에서 더 나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소위 고통받는 목자는 그가 매맞거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묘사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점은 그가 또한 왕으로서 다가오는 인물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 그리스도의 중요한 자기 표현 중 하나에 구체적으로 사용된 구절을 설명하자면, 스가랴 9장에서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아, 승리를 외치라! 보라, 네 왕이 네게로 오느니라.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 곧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며 그 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화평을 베푸시리라.

음, 이 구절이 사용됩니다. 마치 스가랴서 후반부 전체가 예루살렘에 와서 당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할 목자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요 강조점 또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보여 준 마지막 위대한 계시적 행위는 당나귀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목자 인물은 왕을 의미하며,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하려고 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이 테이프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강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복음서 모두에서 청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성읍에 들어오실 때를 알아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것을 알아보고 그분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의 길에 종려나무와 종려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놓아 두었습니다. 나는 이제 마카베오의 왕 중 후자 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렇게 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청중은 그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세 권의 책에는 호산나라고 하며 그를 영접하고 종려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실례하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이것이 왕을 반대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겸손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청중은 그것을 알아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거부한 것은 그가 그들의 가치관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실패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을 왕으로 선포한 것을 왕이 선포한 것과 직접 연관시켰고, 빌라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유대인의 왕인 십자가 꼭대기에 자신이 왕이라는 주장을 조롱하면서 그 문구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오셨지만 또 다른 종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고대 왕들의 두 가지 관습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급자이자 보호자가 되십시오. 그분은 그들에게 푸른 초장과 쉼 만한 물만이 아니라 그들을 공급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공급하여 영원히 보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왕들이 행했던 고전적인 방식으로 공급하고 보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년을 살다가 죽는 왕으로서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공급하고 보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한 것은 왕권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의 왕권 구조를 사용한 것입니다. 왕권은 그의 백성에게 영원히 제공되는 왕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을 비교적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리기도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대해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 책을 50년 동안 연구해 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끝없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극적인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새 모세이자 새 모세이시지만, 새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을 빨리 읽어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제시할 때 겉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를 제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창조로 데려가는 송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이심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현재의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된 말씀이십니다. 그 점을 지적하신 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12절).

이곳 요한복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구원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요한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야가 누구인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John은 여기서 단어를 만듭니다. 그것은 명사 형태의 tabernacle인데 그는 그것을 동사로 바꿉니다.

아버지 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음, John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많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모세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 연관성을 보지 못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요한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여러분은 모세의 이야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소서”라고 말함으로써 그 순간의 절정을 이룬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질문에 대답하여, 너는 내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은, 그 구절이 출애굽기 33장과 34장,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4장에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바위 틈에 두신 다음 그를 지나쳐 지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장, 7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하나님에 관한 구약의 유명한 신조를 주고 그의 이름으로 그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1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간단히 말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이 새 모세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모든 복음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왕입니다. 그분은 새 모세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숨막히는 계시이며, 따라서 요한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기를 원하는 무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은 그가 모세이고 다윗이면서 동시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사용하실 정확한 메시지이고, 요한이 복음 전반에 걸쳐 사용할 메시지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위대한 자존자(Great I Am)라고 부르는 사실에서 입증됩니다.

그것은 계시적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새 모세이시며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옛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 새 모세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덜한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0장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아마도 다음 수업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강의를 듣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 비유를 활용하여 자신이 새 시대의 하나님-왕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신약성경 전체,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치유의 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장은 맹인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밝히십니다. 당신은 이사야 61장에서 다가오는 인물이 소경을 고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돌아가서 이사야 42장을 읽으면 그곳에서 메시아가 맹인의 치료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가서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눈먼 사람이 낫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는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일을 자신의 활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9장 전체를 맹인의 치유에 할애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는 10장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아마도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구절에만 집중할 수 있는 다음 강의의 무대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강의에서 시작했던 해방의 언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8번째 세션, 셰퍼드
킹입니다.